

행정 경직성 허물 '사람' 키워야

[기획/세계문화유산시대를 연다] 4) 전문성 바탕으로 공감대 유도

등록 : 2013년 02월 06일 (수) 09:27:05 | 승인 : 2013년 02월 06일 (수) 09:29:17
최종수정 : 2013년 02월 06일 (수) 09:28:15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잠녀문화 세계화 작업이 올해로 3년째 접어들었지만 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되면서 실제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열린 제5회 해녀축제 모습.

잠녀문화 세계화 계획 3년차 불구 공론화만 계속 강릉단오제 등 연속성 전제 '책임자' 양성 등 효과

올해로 3년째 잠녀문화 세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체감도는 높지 않다. 단순한 호칭 통일을 넘어 그동안 진행된 사업이 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되면서 '경직성'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 불구 성과 미미

우선 추진 내용을 정리해보면 2011년 7월 잠녀문화 전승 및 보전 위원회가 구성됐고 △9월 제주잠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확정 △11월 문화재청 한국무형유산 국가목록 선정 신청 등을 통해 '우선 등재 추진 목록'에 포함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후 전승 체계나 문화재법 기준 등 '제주잠녀'와 비슷한 고민을 하던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이뤄졌다.

이에 반해 제주의 반응은 어딘지 미지근하다. '해녀축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과 달리 일반 '수산물 축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콘텐츠로 아쉬움을 샀는가 하면 '잠녀문화'를 살리는 대신 물질 기능 등을 겨루는 친목 대회 성격으로 '볼거리'이상의 자극을 만들지 못했다. 탐라문화제 내 프로그램이던 것을 겨우 별도 축제로 만들었다 했지만 최근 탐라문화제를 제주 대표 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안에 다시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성과를 남긴 것은 검정색 일색이던 잠수복 지원 사업에 오렌지 등 유색을 도입해 물질 작업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과 잠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한 것이 고작이다.

책임감 있는 전문가 절실

'잠녀·잠녀문화'에 대한 관심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데는 해녀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적됐던 부서간 연계 부족이 있다. 문화재 관련 사업은 문화정책과가, 잠수어업인은 기준으로 한 잠녀 관리는 해양자원과가 맡고 있는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해녀박물관이 해양자원과에 포함되며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지만 '잠녀·잠녀문화재의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에 집중할만한 환경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해녀박물관 관리에서부터 전시 기획, 올해는 도내 잠녀들의 생애담을 기록하는 작업까지 말아야 한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워킹 그룹이 구성됐지만 1회 회의를 끝으로 유아무야됐고 지금은 '소관 업무'기준으로 선을 긋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들 움직임은 앞서 유네스코 등재라는 결과를 이뤄낸 타 자치단체의 예를 볼 때 아쉽기 그지없다.

실례로 강릉단오제가 2005년 오랜 준비 끝에 당당히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걸작'에 등재되는 과정에는 '사람'이 있었다.

현재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임돈희 동국대 석좌교수는 유네스코 전 한국측 심사위원으로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진두지휘했는가 하면 지역 대학 교수와 지역출신 연구가 등 학계가 뚝뚝 뭉쳐 강릉단오제의 전통성을 부각시키고 당위성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을 책임졌다.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제몫을 해낸 '공무원'도 있었다. 강릉시청 '공무원'(행정 6급)이던 최선복씨는 행정안정부가 선정한 '행정의 달인(문화예술분야)'에 선정될 만큼 스스로 전문성을 키웠다. 현재 강릉시가 주축이 된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 출범 배경에도 최씨가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의 뒤에는 손상락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세계문화유산담당이 있다. 12년 넘게 역사마을에 대한 애정을 내려놓지 않은 그는 현재 하회탈춤의 무형문화유산 지정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 성읍민속마을 어르신들에게 부여된 '마을장인'이란 명칭도 손 담당의 제안에서 탄생했다. '역사와 문화 보존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줘야 전승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으며 행·재정적 지원 장치 마련에 대한 움직임 역시 부산하다.

잠녀·잠녀 문화에 필요한 것 역시 '사람'이다. 현재 전승보존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전문성을 가미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뿐 이들의 제안이 현실로 옮겨지기까지 상당한 시차를 보이고 있다. 해녀박물관 역시 담당자가 들고 나는 상황이 여전하다. 이대로라면 잠녀·잠녀문화를 지키는 작업을 섬 밖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 말고 방법이 없게 된다.